교양 학생평가기획단 기획안

모듬명		2모듬					
구성원 인적사항	대표	이름	박*지	학과(부)	식물생명공학부	학번	***759
	구성원	이름	정*일	학과(부)	화학공학부	학번	***641
		이름	이*은	학과(부)	전자컴퓨터공학부	학번	***133
		이름	정*윤	학과(부)	문화컨텐츠학부	학번	***216
		이름	김*은	학과(부)	체육교육과	학번	***801

제안 영역		
	1. 교양교과목 운영 개선	O
	2. 신규 교과목 개설	O
	3. 교양교육 정책	O
	4. 기타사항	

1. 기획안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론중심의 고전적인 교과목을 벗어난 실용성 높은 교과목 개설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론중심의 고전적인 교과목 중심, 실용성 높은 교과목 부족

- 실생활 적용중심의 강의 증설 (예체능 분야의 다양화 및 영어 이외 각종 외국어회화)
- 이색적인 분야의 교양과목을 개설
- 시범적으로 교양강의 개설을 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추후 학교 측에서 개설 요망
- 이론중심의 교과목은 특성상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습, 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을 과목특성에 맞게 적절히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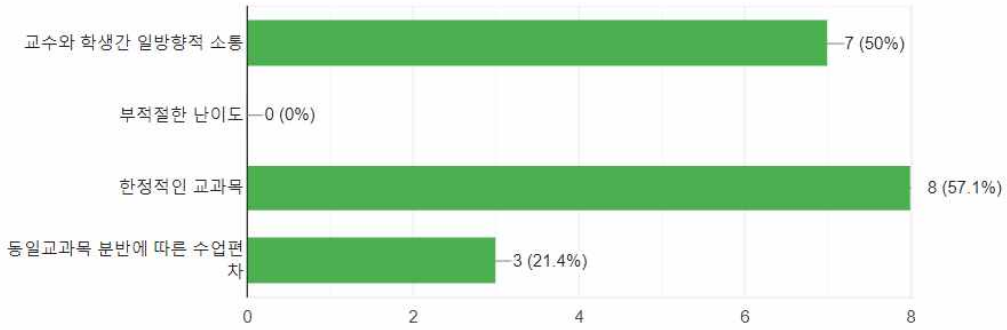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등 제시)

*** 전남대학교 학생 57명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 전남대학교 재학생)**

1학년(21명,36.8%), 2학년(22명,38.6%), 3학년(9명,15.8%), 4학년(4명,7%) 6학년(1명, 1.8%)

사범대학 9(15.8%) / 공과대학 9(15.8%) / 경영대학 7(12.3%) / 인문대학 7(12.3%)
문화사회과학대학 6(10.5%) / 농업생명과학대학 6(10.5%) / 생활과학대학 3(5.3%)
공학대학 2(3.5%) / 자연과학대학 2(3.5%)
예술대학 1(1.8%) / 사회과학대학 1(1.8%) / 법과대학 1(1.8%)
수산해양대학 1(1.8%) / 자율전공학부 1(1.8%) / 간호대학 1(1.8%)

Q 교양교육에 있어 불만족하는 이유 중 '한정적인 교과목'이 다수를 차지



☞ 이론중심의 한정적인 교과목, 교수와 학생간 일방향적 소통순으로 불만사항이 컸음
· 이론중심의 교과목은 결국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침
이러한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은 학생들의 저조한 수업참여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대학 강의식 수업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질문 저해요소 분석 연구(황청일, 이성호, 2011)'**에서 2010년 2월22일~2010년 6월 21일 약 4개월 동안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 3개 강좌와 3년제대학 2개 강좌, 총 5개의 인문.사회과학 강좌를 대상으로 대학 강의식 수업에서 학습자가 질문을 하는데 있어 꺼려하는 이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문을 하는데 있어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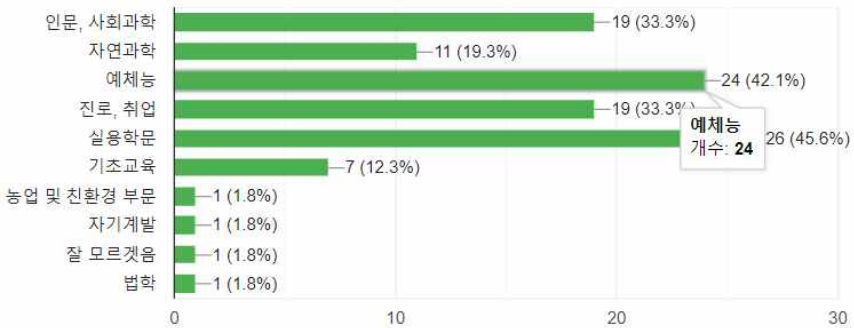
Ⅰ. 학습자 질문에 영향을 주는 교수자 요소
① 교수자의 질문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
② 질문시간과 질문기회 부재
③ 부정적인 감정적 피드백 행동
④ 불충분한 정보적 피드백 행동

Ⅱ. 학습자 질문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
① 어렵고 불편한 교수자와의 관계
② 동료학습자의 부정적인 시선과 반응
③ 대형강의로 인한 심리적 위축
④ 질문이 낯설은 수업분위기

Ⅲ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
-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합법적 유능함을 가진 교수자가 잘못된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중요
-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보다 질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습자의 질문이 가치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
- 교수자는 학습자 질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함
-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를 소중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

- 교수자는 흥미있고 성실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학습자 질문이 가치 있고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 교수자는 언제라도 학습자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
-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질문이 고양되도록 노력
-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수평적인 관점으로 학습자를 바라보고, 편안함과 친밀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교수자는 특히 학습자의 심리적 위축감이 큰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그룹활동을 통해 질문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그룹별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수자가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수업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고, 학습자 및 동료학습자의 질문을 강조하며, 함께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학습자가 보다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업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 이러한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는 초반에 형성되며, 한번 형성된 분위기는 쉽게 와해되지 않고,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반드시 초반에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Q 교양교과목의 개선 및 보완을 희망하는 영역



☞ 예체능, 실용학문, 진로, 취업등의 분야에 있어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
기존의 있는 예체능 및 실용 학문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목이 부족한 우리 대학의 교양교과목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남대학교 교양 교과목 현황

역량교양	기초교양	균형교양
창의: 13개	기초과학: 21개	인간과 사회: 61개
감성: 8개	기초도구: 25개	자연과 기술: 27개
공동체: 14개	총 46과목	생활과 예술: 73개
총 35과목		표현과 소통: 8개
		진로와 창업: 8개
		총 177과목

< 예체능 관련 교과목 >

음악의 이해 / 미술의 이해
운동과 건강 관리 / 현대사회와 스포츠,
댄스스포츠기초 / 배드민턴기초 / 축구기초 / 태권도기초 / 테니스기초 / 피트니스
한국전통미술의 이해 / 한국전통음악의 이해 / 한국음악의 이해
→ **총 13과목 , 전체 약 5%**

< 취업관련 교과목 >
(취업관련 교과목은 개인의 학과와 자신의 관심별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은 상이, 나열된 교과목은 보편적으로 취업관련 교과목에 해당)
자기개발을 위한 코칭리더십 / 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 / 여성의 자기개발과 취업전략
프랑스권 취업과 창업 / 아시아 공동체와 창업 / 기술과 창업 / 창의적 문제해결과 특허출원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 수산경영과 창업 / 공학소양특강
→ **총 10과목, 전체 약 3.87%**

∴ **다른 분야의 과목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실생활 적용중심의 강의 증설 (예체능 분야의 다양화 및 영어 이외 각종 외국어회화)
- 고전적인 이론중심 교과목은 전공 과목에서 많이 다루기에 학습에 있어 부담이 교양과목에 비해 비교적 높음
  따라서 교양교과목 만큼은 이론중심의 고전적인 것이 아닌 문화와 예술, 체육, 뷰티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과목신설시 학생들이 재충전하고 나아가 진로 탐색, 자기 개발 등의 효과가 기대됨

2. 대학자체에서 학생과 교수간 피드백을 할수 있는 장치 마련
- 교수와 학생간 일방향적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체에서 중간전후로 1회로 이클래스에 온라인으로 설문을 하여 그 결과를 교수님에게 통보해 피드백을 반영할수 있도록 마련함
  또한, 성적평가시 중간/기말/과제/출석성적과 등수를 포털에 학점을 공고할 때 함께 입력해 학생들도 볼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들 또한 교수님의 평가방식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 교수-학생 상호간 만족하는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3. 이색적인 분야의 교양과목을 개설
- '이색교양교과목 개설 희망 투표'를 열어 학교 또는 학생측에서 제시한 교양 교과목을 투표를 통해 다수의 표를 획득한 교양 교과목을 개설

• **동국대, 연세대, 중앙대 '결혼과 가족'**
- 가상커플로 배정된 수강생들이 각종 데이트 미션을 수행하여 사랑, 결혼, 가족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키움

• **숙명여대 ' 메이크업의 실제와 활용'**
- 메이크업 강사의 시범과 학생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자신의 얼굴과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목표

• **삼육대 '제과(제빵) 이론 및 실습'**
- 우리가 즐겨먹는 빵 혹은 과자를 만드는 원리를 배우고 직접 만들어봄

• **세종대 '우리 차 문화의 이해'**
- 차의 의미, 분류 등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우리나라 차 문화의 역사를 되짚어 봄

• **부경대 '생선회 이야기'**
- 회이름 구별하기, 자연산과 양식 구분하기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수업으로 생선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개설됨

• **건국대 '현대사회와 패션'**
- 패션에 대해 무지한 학생들의 패션 센스를 높여주는 수업
• **서강대 '디지털 문화와 예술'**
- 웹툰작가 조경규가 직접 강의하는 수업으로 수강생들이 한 학기동안 직접 웹툰작가가 되어 자신만의 단편 작품을 완성

4. 취업집중 교과목 중 이론강의(ex. 자소서 인적성, ncs, 면접 집중대비 등)이외에도 실습가능한 강의 개설(단, 자과생은 엄격히 수강금지하여 학점쏠림방지, S/U평가제 도입)

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1. 실생활 적용중심의 강의 증설

① 예체능 분야(예술대학, 체육대학) 강의는 대부분 실기 수업으로 해당 학과 전공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형성되어 비전공자들이 강의를 듣기에는 부담이 존재

☞ 비전공자들을 위한 예체능 교과목의 증설이 고려됨

- 예를 들어, 사진디자인1(서영상 교수님)과 같이 예술대학 전공강의이나 타과생들도 수강가능한 과목이 존재하나 이를 소수의 학생들만이 알고 있음.
  이러한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교양과목을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강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많은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알수 있듯이 예체능 관련 강의 건의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② 영어 이외에 다양한 언어의 강의를 증설

☞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조사한 뒤, 학교에 현재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강의를 증설하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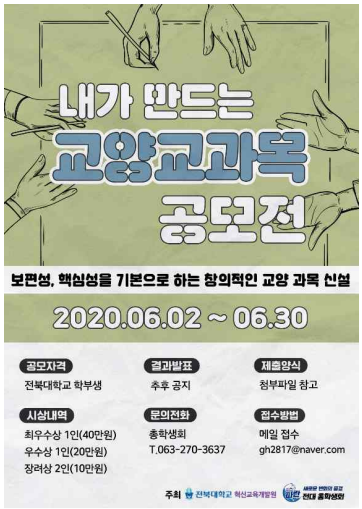
☞ 현재 '기초', '생활'로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여러 외국어강의가 개설되어 있음
이를 생활1 생활2 또는 실전 등의 강의를 추가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외국어 강의를 제공하여 '새로운 언어'를 심도있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

☞ 현재 개설된 외국어 교양과목은 대부분 인문대학 언어전공학생들을 위한 필수교양강의로 개설되어 있는데 간혹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수강신청하여 듣는 경우가 존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학과 학생들을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분반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고려됨

2. 문화, 체육, 예술, 외국어, 실용적 교과목 등을 중심으로 한 이색적인 분야의 교양과목을 증설

① '희망 교양 교과목 개설 희망 투표'를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투표를 열어 가장 많이 득표한 과목을 실제로 개강



1-1) 참고 자료, 사례

<전북대학교에서 이번에 실시한 교양교과목 공모전>

.jbnu.ac.kr/kor/?menuID=13www9&sfv=subject&subject=교양&mode=view&no=43544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교양 교과목 개설 방향성

1) 기초, 일반, 핵심 교양 중 일반교양 개설을 전제로 함

2)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설계한 강의가 실제로 개설되는 것을 목표

3) 교내 공모전 증대 및 상장 수여 기회 부여

4) 강의 개설을 위한 교과목 자체의 적정성 기준

가) 적극적 기준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 요건 요구)

(1)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포괄성을 가져야 함

(2) 직업교육이나 특수 전문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학문 전 분야의 기초가 되어야 함

(3)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영역에서 공인된 학술 가치를 갖는 과목

(4) 대학교육 전반에 미치는 학술적 수준 요구

(5) 체험교육의 중심이 되는 인성 함양 교과목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추구

나) 소극적 기준

(1) 기초학문 분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2) 응용학문이나 실용학문 관련내용 지양

(3) 직접적인 취업, 창업 지도 교과목 지양

(4) 취미생활 및 상식의 확장을 위한 비학술적인 내용 배제

- 평가가 곤란한 과목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론'적인 평가와 '실습'이 모두 가능한 분야로 교양과목을 증설하면 평가 또한 수월할 것으로 예상
  또는 절대평가 혹은 합/불제(S/U제도)로 시행하여 모호하거나 주관적 평가로 받는 손해를 없애고 성적에 대한 부담을 없앤다.

3. 취업집중 교과목

① 면접 교과목을 증설하여 실제 면접 경험이 많은 강사(교사)를 교수로 초빙한 뒤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랜덤으로 팀을 꾸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

- 평가는 수강생들이 서로 평가하거나, S/U로 평가
- 수업 내용으로 직접 면접 예상 문제를 출제, 이색적인 면접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으로 예상

6.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1. 실생활 적용중심의 강의 증설
- 학생들이 더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새로운 흥미 및 특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문화, 체육, 예술, 외국어, 실용적 교과목 등을 중심으로 한 이색적인 분야의 교양과목을 증설
- 희망하는 교양 강의를 개설되어 수강시 학교생활의 흥미를 증가
- 이론 중심의 고전적 교과목 수업에서 벗어나 창의적 수업을 도입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을거라 기대

3. 취업집중 교과목
-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학생들이 학교 강의를 통해 만날 기회 제공

7. 성과(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개설 전, 후로 설문조사를 실시
  사전 설문조사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강의 주제와 강의 내용 등을 물어보고,
  사후 설문조사는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만족도, 재참여 여부 등을 조사한다.

- 학기가 끝나고 이색 교과목에 대해 수업 방법, 내용, 평가 방법, 만족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결과를 토대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재신설하거나,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다른 분야의 이색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